

온가족이 함께하는 설날 감사 예배

2 0 2 4

개 식 사

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오늘 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, 경건한 마음으로 다같이 설날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.

인 도 자

예배의 부름

"자녀들아!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
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
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"(엡6:1-3) 아멘.

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설날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

인 도 자

찬

양

찬24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

1절)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
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

*후렴)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
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

2절)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
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

3절)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
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

다 같 이

대 표 기 도

담 당 자

성 경 봉 독

시편 16편 11절

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
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

인 도 자

말 씬

설교문 참조(뒷면)

담 당 자

축복의 시간

* 격려와 칭찬의 시간_다같이

(새해 소망을 나누거나, 가족 간에 사랑의 고백을 한다.)

* 축복기도_인도자

(온 가족의 소망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한다)

인 도 자

주 기도 문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
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
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
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
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

다 같 이



하나님으로 즐거워 하는 삶

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들뜨습니다.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만남,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, 오고 가는 용돈 속에 피어나오는 웃음은 명절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. 과거와 달리 현대 명절은 연휴를 기회 삼아 국내외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만의 휴식을 갖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. 이처럼 '즐거움'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며 축복입니다. 하지만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결국 쾌락이 되고,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의 기쁨을 주시되,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.

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"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?"입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"**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**"이라고 말합니다. 사람의 존재 목적 중 분명히 '즐거움'이 있습니다. 하지만 즐거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. 즐거움의 대상이 있는데,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,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,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.

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어떤 한 시인의 신앙고백입니다.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(산업, 분깃, 구역, 기업)을 살펴보면 이 시인은 레위 지파 제사장일 가능성이 큼니다. 주목할 점은 레위 지파는 땅을 "기업"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당시 땅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었고,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 받은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"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"(2)고 말하며, "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"(6)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

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? 그것은 그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만질 수도 없는,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'생명'을 추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길 위에서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.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**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입니다.**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.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.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"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"(시16:11)

